2019 솽스이, 中 1인당 17만원 썼다

티몰, 매출 신기록 44조 6000억 원, 택배 5억건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솽스이 (双十一, 11월 11일)에 중국 국민 인당 평균 1000위안(16만 6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12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 왕롄(网联),인롄(银联, 유니온페이)의 온라인 결제 건은 총합 17억 7900억 건, 총액 1조 4820억 7000만 위안(246조 5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35.5%, 162.6% 증가한 수치다.

중국 인구 수 13억 9500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솽스이 하루에만 인당 평균 1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 각 1000위안을 소비한 꼴이 된다. 이는 또한 지난해 중국 국민총생산(GDP)의 1.65%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하다.

중국 온라인 간편 결제 통합 시스템인 왕롄만 보면, 솽스이 당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된 타 기관(跨机构) 거래 금액은 1조 1600만 위안(166조 3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47.25% 증가했다. 이중 타 기관 결제 처리가 가장 많이 몰린 시간은 0시 3분 44초로 초당 7만 1500건이 결제됐다. 같은 날 인롄이 처리한 온라인 결제 금액은 지난달 하루 평균치보다 5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티몰은 솽스이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1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매출은 2684억 위안(44조 6134억원)으로 또 한번 기록을 쇄신했다. 지난해 매출보다 549억위안(9조 12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티몰 뿐만 아니라 징동(京东)도 올해 '솽11' 쇼핑축제 매출이 지난해보다 446억위안이 증가한 2044억위안(33조 9,610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우체국은 11월 11일 전국 우체국 및 택배회사들이 5억 3500건의 택배를 처리했으며 이는 올해 2분기 이후 평소 물량의 3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기대비 28.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이민희 기자

"통신사 바꿔도 쓰던 번호 그대로"

10일부터 시작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쓰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타 통신사로 이전(중국명: 携号网转)할 경우 적용하는 서비스세칙을 발표했다고 15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저녁 3대 통신사들은 이와 관련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휴대폰 번호가 다 쓰던 번호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휴대폰 번호 앞자리가 1349, 174, 170, 171, 162, 165, 167인 번호와 사물인터넷 전용번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쓰던 번호 그대로 타 통신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여야 하며 ▲사용정지됐거나 분실 상태가 아닌 정상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여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의 요금 결제가 완료된 상태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거나 해지 가능한 상태 ▲타 통신사로의 이전이 발생한 후 120일 이상 경과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편,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타 통신사로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각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된다. 메시지 작성내용은 'CXXZ#사용자명#신분증번호'이며 차이나모바일 사용자들은 10086번호로, 차이나텔레콤은 10001번으로, 차이나유니콤은 10010으로 발송하면 알 수 있다.

윤가영 기자

텐센트 근로자 평균 월급 1240만 원

텐센트(腾讯)의 월 평균 근로자 임금이 7만 4400위안(1240만 원)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14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전했다. 지난 13일 텐센트가 발표한 올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상반기에 비해 3000위안 가까이 올랐으며 1인당 평균 7만 4400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텐센트의 3분기 재무보고서에서 밝힌 인건비는 135억 8000만 위안으로, 3분기 말 기준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해당 분기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22만 3100위안으로, 월 평균 7만 4400위안이다. 1~6월 월 평균 임금이 7만 1800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들어 임금이 3.6%가량 오른 셈이다.

여기서 인건비는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사회보험, 복지 등 비급여성 지출도 포함되며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게 되는 세후 급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텐센트는 3분기 매출이 972억 3600만위안으로 동기대비 21% 늘어났다. 이 가운데서 금융과학기술 및 기업서비스 매출이 거의 30%에 달했다. 또한 텐센트의 1~3분기 매출은 2715억 22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1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동기대비 11% 늘어난 717억 2800만 위안에 달했다.

윤가영 기자

아디다스, 운동화 생산공장 다시 중국으로

운동화 생산을 독일로 돌아갔던 아디다스가 다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13일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에 따르면 독일 아디다스가 지난 11일 2020년 4월 전까지 운동 생산기지를 독일에서 아시아로 옮긴다.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독일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위해 '스피드 팩토리'라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세웠다. 4차 산업혁명의 사례로 매번 언급되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였지만 이 공장은 2020년 모든 생산이 중단된다. 아디다스측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신발류 제품의 생산지를 다시 중국과 베트남 두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전의 스피드 팩토리에서 사용한 기술은 아시아 공급상의 보유한 설비와 접목시켜 생산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 아디다스가 매년 생산하는 신발은 4억 켤레로 이 중 스피드 팩토리 두 곳에서는 50만 켤레 정도만 생산되고 있다. 90% 이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운동화를 생산하는 경험을 얻었다"라고만 평가했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는 아디다스의 이 같은 결정은 스피드 팩토리로는 대규모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일부 운동화 밑창 등을 생산하고 고무 소재의 신발 밑창 등은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